

대 가나 수출, 왜 줄어드나 했더니...

환율급등이 주요인, 물류비 부담도 영향...수출상담회로 반전 노려

우리나라의 가나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2007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9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가나 수출은 그러나 올 들어 1~2월까지 작년 이맘때보다 28.6%나 줄었다. 가나 수출이 줄어드는 이유와 전망을 코트라 아크라 무역관을 통해 알아봤다.

□ 세디화(Cedi) 평가절하=수입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가나 세디화의 주요 외국통화, 특히 미 달러화에 대한 평가절하이며 환율 불안정이 가나 수입상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앙은행은 세디화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4일 외화 인출 및 외화계좌 이체 등을 금지하는 등 새로운 조치를 내렸으며 4월에는 외화거래 시스템에 중국 위안화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많은 가나 무역업자들이 수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위안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은 이 조치가 달러 수요를 감소시켜 세디화 환율 인상을 억제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가나 내 수입상들은 달러를 구입한 뒤 위안화로 환전해 달러화 대비 세디화 환율이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인플레이션 지속=작년 이후 가나의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나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3월 중 인플레이션은 14.5%로 2월의 14.1%보다도 높았다. 인플레이션의 인상은 수입상품을 비롯해 가나 내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불러와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함께 상품 수입 감소를 유발하고 있다.

□ 가처분소득 감소=수입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의 또 다른 이유는 가나 경제 전반의 어려움 때문으로 경제위기가 자영업자나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는 정부가 2012년 말 대선 시점에 약속한 임금 인상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이 많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크게 오르는 데 반해 소득수준은 높아지지 않았으며 이는 자동차, 전자기기과 다른 소비재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귀결되고 있다.

□ 통관의 어려움=최근 가나 항구에서 수입상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늘고 있다. 아크라 무역관이 직접 접촉한 수입상들에 따르면 가나 세관이 새로운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서 통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즉 통관절차가 훨씬 복잡해진 반면 상품 반출에 짧은 시간을 부여해 자금이 충분치 못한 수입상은 정해진 기간(1~2주)에 통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때 정해진 기간을 지난 상품은 세관이 따로 보관하며 수입상은 벌금을 내야 한다.

□ 악화된 비즈니스 환경=수도, 전기 등 유틸리티 요금이나 연료가격 인상 같은 정책적 요인 또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가나의 생산업체들은 대부분 원자재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원가가 오르다 보니 수입을 줄이는 것이다.

□ 국내생산 촉진=가나 정부와 주요 기관들은 자국산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의류, 신발, 식료품 등에 대해 자국산 제품 애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전시회, 상담회, 콘퍼런스,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나에서 생산될 수 있는 상품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 수입선 전환하는 가나 수입상들=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건축자재를 수입하는 인터페이스 가나 리미티드에 따르면 환율 불안정으로 상품 수입에 전보다 훨씬 많은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 회사는 “통상 신용장(L/C)으로 거래하는데 환율 인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파트너는 더 많이 수입해주길 요청하고 있지만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환율이 안정되면 양을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터페이스 사는 또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선적비용이 타 지역보다 비싸 아시아 수입을 줄이고 유럽 수입을 늘릴 예정이지만 상품별로 구분해 수입선 전환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즉 터키 등지에서 원하는 상품을 수입할 수 없다면 다시 한국 등 아시아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류 수입업체인 크리스펴 엔터프라이즈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환율 급등을 지적했다. 이 회사는 “비싼 선적비용 때문에 아시아에서 수입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주로 영국에서 수입해왔으나 최근 한국에서 중고 의류를 포함한 의류제품을 들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의 수입 물량을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며 향후 환율이 안정되면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 수출상당회로 돌파구 마련=현재 가나 수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급등한 환율 때문이다. 환율 급등세가 안정되고 가나의 다른 경제문제가 해결될 경우 가나의 수입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나의 경제성장은 작년의 7.1%에서 보는 것처럼 안정적이며 자동차 같은 주요 수출품은 가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가나 정부는 심각한 외환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데다 재정 및 무역적자, 물가 급등, 인프라 개발자금 부족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아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심각한 전력부족 문제와 국민들의 생활수준 퇴보 등 사회문제가 정치 혼란과 연계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수출업체나 가나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은 급변하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한편 우리 상품의 가나 수출 감소를 반전시키기 위해 아크라 무역관은 오는 6월 24~27일 현지에서 ‘한국상품 수출상당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와 관련, 문의사항은 임채근 관장(핸드폰 +233 204 334 501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233 204 334 501 무료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이메일 192254@naver.com)에 연락하면 된다.